

●●● 김기용 (주)애그리브랜드 퓨리나코리아 회장

고객과 함께 40년



▲ (주)애그리브랜드 퓨리나코리아 김기용 회장

세계로 뻗는 애그리브랜드 퓨리나코리아

(주)애그리브랜드 퓨리나코리아는 '최고급 동물성 단백질 식품을 보다 값싸게 많이 생산하여 농가의 소득증대 및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한다.'는 사업이념을 바탕으로 가치중심의 경영혁신과 차별화된 가치창조로 고객과 함께 발전해온 우리나라 대표 사료회사이다. 1968년 국내 최초로 현

(주)애그리브랜드 퓨리나코리아는 1894 윌리엄 H. 덴포드에 의해 미국 미주리주에 설립된 랄스톤 퓨리나가 한국축산의 태동기인 1967년 우리나라에 진출하여 한국 사료 및 축산업계의 선두주자로서 우리나라 축산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

본고는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은 퓨리나코리아에서 35년동안 근무하면서 축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였고 현재 퓨리나코리아 회장직을 맡고있는 김기용 회장을 만나 창립 40주년의 의미와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들어 보았다.

대식 대규모 사료공장을 건설, 한국 사료공업의 효시를 이룬 퓨리나코리아는 현재 송탄, 군산, 김해에 최첨단 시설을 보유하고 연간 100만톤 이상 200여 종류에 달하는 사료를 생산하여 전국 10여 개의 하치장으로 통해 공급하고 있다.

1997년 8월에는 재단법인 애그리브랜드 퓨리나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축산 및 사료분야의 학술적

연구 활동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이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장려하여 축산 및 사료사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현재는 중국, 인도 등 해외진출을 통해 퓨리나코리아의 명성을 높여가고 있으며 2001년 5월에는 (주)카길코리아와 합병하면서 CAN KOREA를 탄생시켰으며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간에 걸쳐 개최된 '퓨리나코리아' 40주년 기념식과 '카길코리아' 20주년 기념식에는 미국 본사를 포함해 중부·서부·동부사업본부 직원 및 해외



▲ CAN KOREA Business Launching Meeting 장면.
(주)에그리브랜드 퓨리나코리아 40주년·카길 20주년 창립기념식

각 지사 대표자 등 총 750명의 임직원들이 모여 퓨리나코리아 40주년·카길 20주년 창립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창립기념식 공연 및 행사와 함께 경복궁, 국립중앙 박물관, 한강 시민공원, 청계천, 코엑스몰 관광을 통해 전직원의 단합을 다지기도 했다.

고객을 위한 경영

김기용 회장은 퓨리나코리아 40주년을 맞이하여 35년 동안 동사에 근무해 누구보다도 감개무량함을 느끼고 있으며, 초창기 쌀뜨물과 풀로 농장 경영을 하던 것을 질 좋은 사료를 공급하면서 현재의 퓨리나코리아로 발전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김기용 회장은 뒷마당에서 부업으로 가축을 기르던 우리 축산이 21세기를 맞고 있는 현재 거대한 기업축산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선진 사양기법을 도입하여 가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장의 경영관리를 개선하여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전달하고자 하는 퓨리나의 철학과 헌신적인 서비스 활동이 뒷받침되었다고 언급하였다.

퓨리나 발전의 밑거름에는 지난 40년 동안 충고와 정성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은 고객과 함께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퓨리나코리아는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위해 '퓨리나 우수농장의 날'을 지정하여 우수한 사양관리로 가장 탁월한 결과를 얻은 고객을 선정하여 지역 사양기들을 초청하여 그 우수성을 직접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최고의 성적을 이룩한 퓨리나 사양가의 경험담을 직접 듣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그 외 축종별 캠페인을 개최하여 최신의 사양기술,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여 농장에 보급하여 우리 축산을 선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김기용 회장은 퓨리나코리아가 세계 최고의 종합축산회사가 되기 위해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 사료관련 사업영역을 확장하며, 초일류 기업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며 우수한 인재들의 행복한 일터를 마련하고자하는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농가의 수익 증대를 위해 노력해 갈 것을 약속하였다. (정리 | 장성영 기자)